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4, Vol. 38, No. 4, 253-277
https://doi.org/10.21193/kjspp.2024.38.4.001

정규논문

사망의 원인이 사자의 도덕성에 따라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

현 진 명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망 원인이 도덕성에 따라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 또는 자연사로 사망했다거나 살아있다고 했을 때, 인물의 지각된 호감도, 유능성, 도덕성, 따뜻함, 인물이 살아온 삶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해 추정되는 그리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긍정 편향으로 인해 인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사망 원인이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따뜻함을 제외한 모든 인상 변인에서 도덕성과 상관없이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났으며, 참가자들은 자연사한 인물보다 사고사한 인물이 더 유능하고, 삶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이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와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할 때보다 자연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며 비도덕적인 인물은 자연사할 때보다 사고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물의 사망 원인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죽음 긍정 편향에 대한 문화적 세계관 지지 해석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인상 형성의 대상을 사자로 확장하고, 사망 원인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현상을 탐구하고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망 원인, 죽음 긍정 편향, 인상, 공포 관리 이론, 공정성

† 교신저자: 박상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난한 예술가의 죽음 이후 나타나는 작품의 가치 상승 현상, 유명인의 사망 후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찬사와 태도 변화 등 한 인물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 특수한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예술가의 죽음은 작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며(Ekelund, Ressler, & Watson, 2000), 작가의 명성과 호감도를 증진시킨다(Green & Mohler, 2014). 그러나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죽음의 필연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학에서 사망한 인물에 대한 인상을 알아본 연구는 적다.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 죽은 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죽음 긍정 편향 현상을 알아본 몇몇 연구는 있어 온 반면(Allison & Eylon, 2005; Allison, Eylon, Beggan, & Bachelder, 2009; Futterman, Gallagher, Thompson, Lovett, & Gilewski, 1990; Hayes, 2016; Van Dick, Fink, Steffens, Peters, & Haslam, 2019), 사망 정보에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망 원인의 정보가 사망자 인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죽음 긍정 편향 현상에 이어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인상 형성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연사 했을 때보다 비자연사 했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성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낮게 지각된 공정성은 공정성 회복의 욕구로 이어져 인상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에 대한 긍정 인상 평가

죽음 긍정 편향(death positivity bias)은 Allison 등(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이 연구를 통해 관찰한 현상으로 한 인물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보다 죽었다고 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지도자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보다 죽었다고 했을 때 더 호감이 가고 유능하며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제 뉴스에서도 살아있을 때보다 사망한 이후에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et al., 2009). 이같은 죽음 긍정 편향은 사별한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Futterman et al., 1990), 지도자가 죽었을 때 더 카리스마 있게 지각되고(Van Dick et al., 2019),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Hayes, 2016).

그러나 이와 달리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죽음 부정 편향(death negativity bias) 또한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비도덕적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다고 묘사되었을 때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더 긍정적인 평가가, 비도덕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더 부정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죽음 극화 편향이 있다는 것이다.

Allison 등(2009)은 이러한 죽음 극화 편향을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MT란 현실에 대한 문화적 지각이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죽음의 현저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 불안을 완화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문화는 문화가 지닌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안전을 보장하므로 존재의 유한성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을 문화 속에서 가치있는 존재로서 지각할 때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 뿐만 아니라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대인 간 평가, 도덕 위반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순응 등 죽음과는 무관한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1999),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 반응, 문화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존재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죽음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 감정을 일으키며, 이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세계관(Cultural Worldview)을 지지한다. 문화적 세계관이란 인간 사이에서 공유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창조되고 전파되는 신념으로(Greenberg, Solomon, & Pyszczynski, 1997), 질서, 의미, 가치 그리고 상징적 불멸의 가능성을 제공한다(Greenberg et al., 1990). 실제로 죽음 현저성이 문화적 세계관 지지자 또는 위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점화된 조건의 참가자들은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문화적 세계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Rosenblatt et al., 1989). 그러므로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도덕적인 인물은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물의 사망 정보를 접했을 때 발생하는 죽음 불안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도덕적인 인물은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사람들은 해당 인물을 비판함으로써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여 죽음 불안을 다스리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등(2009)에서 나타난 죽음 부정 편향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Allison 등(2009)은 실험적 방법과 실제 뉴스 기사 자료를 통해 총 다섯 개의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한 리더가 살았다거나 죽었다고 했을 때 참가자들이 리더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중 연구 1과 2에서는 지도자의 도덕성(세계관 지지 여부)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났는데, 이는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평가되는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망 정보는 해당 인물이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인물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문화적 세계관을 덜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이 죽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죽었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Schimel, & Williams, 2008). 이는 Allison 등(2009)에서 비도덕적인 인물(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인물)의 죽음에 의해 발생한 불안을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해석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또한 생전에 비도덕적이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망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장례의식, 삶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가 관습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은 죽음 부정 편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사형수에 대한 장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연합뉴스, 2009. 10. 21일자), 종교적 차원에서 위령미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연합뉴스, 2010. 10. 27일자). 또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속담 'De mortuis nil nisi bonum dicendum est'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죽은 자를 비난하지 않는 터부(taboo)의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등(2009)의 연구와 달리 도덕성과 상관없이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운 연구의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인물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의 인상 형성과 인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죽음이라는 특성이 인상의 다차원적인 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인상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왔는데(Shaw & Steers, 2001), Asch (1946)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하나의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Asch(1946) 연구에서 “따뜻한”과 “차가운”이라는 인물의 특성만을 제외하고 그 외의 성격 특성을 동일하게 제시하였을 때, “따뜻함” 여부에 따라 참가자들은 “창의적인”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성격적 특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구직자의 채용 시기와 인상 구성 요소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도 인상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구직자 채용 시기가 먼 경우에는 긍정적 인상 요소가 먼저 제시될 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채용 시기가 가까운 경우에는 긍정적 인상 요소가 나중에 제시될 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yal, Hoover, Fujita, & Nussbaum, 2011). 이 결과들은 비슷한 인상 요소를 갖추고도 하나의 인상 구성 요소 또는 인물에 대한 특성이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물의 사망 여부 또는 사망 원인이라는 요소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 평가 요인으로 인물의 긍정적인 인상을 대표하는 호감도와 함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상 형성의 두 가지 주요 차원인 유능성과 따뜻함을 측정하였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덕성은 조작되는 변인이지만 제시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사망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도덕성도 함께 측정하였다(독립변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종속변인으로서의 도덕성의 용어 구분을 위해 종속변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지각된 도덕성’이라고 명명함).

이에 더해 사자 인상과 관련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인인 인물이 살아온 삶의 가치, 그리고 인물의 지인이 인물을 다시 볼 수 없을 때 느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리움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삶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주 측정되는 요인은 아니지만 사망 맥락 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실제로 사망자 삶의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책 및 윤리적 보상을 다루기 위한 연구가 있어왔다(Hauer, 1994; Mrozek, & Taylor, 2002). 또한 사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 중 Robinaugh 등(2016)에서는 사별 당한 사람의 사자에 대한 그리움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Stroebe 등(2010)에서도 사별한 사람의 그리움과 우울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도 인물에 대한 그리움 수준을 측정해 인물에 대한 인상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인상 차원에서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후광 효과(halo effect)로 인해 대상에 대한 한 가지 속성에서의 평가가 다른 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이 사망했다는 정보는 호감도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인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사망 원인과 사자에 대한 인상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확장해 사망의 원인이 인물의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사람들은 아이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보다 자살로 죽었을 때 아이가 더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Calhoun, Selby, & Faulstich, 1980), 이는 사망의 원인이 사망자에 대한 추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망 원인은 큰 차원으로 자연

사와 비자연사로 분류하였으며 비자연사 조건의 사망 원인은 사고사로 설정하였다. 비자연사의 원인은 병사, 고의적 자해(자살), 교통사고 순으로 사망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통계청, 2021), 병사는 고통을 겪는 시간이 자연사에 비해 장기적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자살 또한 사망자에 대한 다양한 추론과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한 예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확인된 자살에 대한 반응은 분노, 조롱, 놀라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Al-Zaman, & Or Rashid, 2022). 반면, 사고사는 자연사와 고통 기간이 비슷하면서 자살과는 달리 삶의 과정과는 무관하고, 사망에 작용한 동기와 같은 다양한 추론 및 반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비자연사 조건의 원인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자연사는 사고사에 비해 좋은 죽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자연사의 특성과 가까운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숙, 김윤정, 2013). 하위 범주는 '평온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사고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죽음인 자연사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되고, 그 결과로 인물에 대한 연민을 유발한다면 이는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이 부정적인 사건을 겪는 것을 볼 때 연민을 경험하여 친사회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Batson, Chang, Orr, & Rowland, 2002; Eisenberg, Eggum, & Di Giunta, 2010).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인물에 대한 인상 평가를 측정하여, 자연사보다 사고사한 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인물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 더 호감을 가진다는 연구(Bramel, Taub, & Blum, 1968)에 기반하여 도덕적인 인물과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했을 때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도덕성은 호감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Hartley, Furr, Helzer, Jayawickreme, Velasquez, & Fleeson, 2016).

연구 가설 2-1: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자의 인상은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비도덕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사망 원인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위협

한 인물이 특정한 사망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공정성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Lerner, 1965)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상은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마땅히 겪을 만해서 발생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긍정적인 사건이, 악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Furnham, 2003).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의 사고사나 비도덕적인 사람의 자연사 등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하지 않다는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피해를 겪는 것은 공정한 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에 기반해 볼 때(de Vel-Palumbo & Berryessa, 2023),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고사는 자연사에 비해 더 공정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사망 원인에 따른 공정성 차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도덕적인 인물은 사고사보다 자연사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지각될 것이며,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고사는 자연사에 비해 더 공정하

다고 지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가설 3: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자연사보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지각이 인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이 불공정한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 공정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Miller, 1977).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기부하거나(Bryan, & Davenport, 1968),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기꺼이 처벌하려고 한다(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즉,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망 원인에 의해 지각된 공정성이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욕구로부터 귀인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Galak과 Chow(2019)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보상을 하려고 하며, 악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처벌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에게 사고사는 자연사보다 불공정하다고 지각되어 보상 차원의 행위가 뒤따를 것이며,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자연사가 발생할 때는 사고사에 비해 불공정하므로 처벌 차원의 행위가 뒤따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엄밀히 사망 사건 자체를 '긍정'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고사에 비해 자연사가 긍정적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의미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성이 인상 평가에서 보상과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보상과 처벌 욕구는 인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즉, 공정성 지각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는 모형이다(그림 1).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의해 형성된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어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물이 비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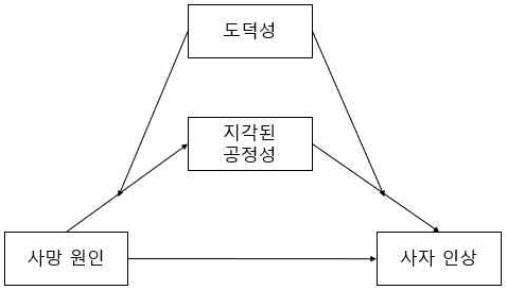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2의 모형

지금까지 본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서론을 마치기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연구 가설을 아래에 재서술하였다.

연구 가설 1: 인물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연구 가설 2-1: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자의 인상은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비도덕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3: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자연사보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연구 가설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의해 형성된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어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물이 비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202211-HR-0241),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참가자 수는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프로그램 3.1버전으로 선형 다중 회귀 분석을 통계 분석 방법으로 설정한 후 산출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중간 효과 크기인 f^2 = .0324(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와 80%의 검증력, 검증되는 예측 변수의 수 3, 총 예측 변수 수 7을 입력하여 참가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산출 결과 총 341명의 참가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성인으로,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다. 실험을 완료한 참가자 중 남성은 161명, 여성은 18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89(SD = 10.48)세였다. 참가자는 참가 완료 시 리서치 회사가 책정한 금액을 받았다. 참가자가 주의 점검 문항에 틀린 응답을 한 경우에는 실험이 중단되었으며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는 없었다.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가 연구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연구 주제는 '인물 이미지 사용 여부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효과'로 소개되었다. 참가자는 연구 설명서를 읽은 뒤 연령과 성별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고 연구 참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연구 조건은 3(사망 여부 및 원인: 생존, 자연사, 사고사) X 2(도덕성: 도덕적, 비도덕적)인 총 여섯 조건으로 참가자는 무선적으로 이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할당되었다. 참가자는 가상 인물인 '박진원'의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대해 묘사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주의 점검 세 문항(인물의 이름, 인물의 현재 상태,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세 문항 중 실험의 내용과 밀접한 인물의 현재 상태를 묻는 문항에 틀린 응답을 한 참가자는 탈락하였다(리서치 회사에서 설계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탈락하였으며, 실험은 필요한 참가자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그 후 참가자는 제시된 인물에 대해 지각된 호감도, 유능성, 도덕성, 따뜻함을 평가하고 인물의 삶의 가치, 인물에 대해 추정되는 그리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회상하도록 돕는 두 개의 문항('박진원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진원 씨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에 응답하였다. 도덕성 회상 문항에 대한 답변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다'로, 사망 원인 회상 문항에 대한 답변은 '00시에 살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수명을 다해 사망하였다'로 구성되었으며 틀린 응답을 한 참가자는 없었다. 이어서 두 사망 조건의 참가자들은 사망 원인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을 마치면 실험이 종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보상을 받았다.

실험 조작

사망 여부 및 사망 원인 조작

먼저 모든 조건에서 참가자가 연구 목적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물의 이름 위에 인물 실루엣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생존 조건에서 인물은 '현재 박진원 씨는 00시에 살고 있다'로 묘사되었으며, 사고사 조건에서는 '현재 박진원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자연사 조건에서는 '현재 박진원 씨는 수명을 다해 사망하였다'로 묘

사되었다.

도덕성 조작

도덕성은 인물의 삶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되었다. 도덕적인 인물은 정직하고 타인을 도우며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비도덕적인 인물은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연구자는 Landy, Piazza와 Goodwin(2016)에서 사용된 도덕성 조작 시나리오를 번역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생존 조건일 경우 '아래는 박진원 씨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망 조건일 경우 '아래는 박진원 씨의 생전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로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도덕적인 인물 묘사 시나리오

박진원 씨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꺼림직하게 생각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박진원 씨는 예전에 동료가 매우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장에게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알려 동료가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박진원 씨는 여자 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바람피우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길 잃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며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다. 박진원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매우 좋게 생각하며, 그가 매우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도덕적인 인물 묘사 시나리오

박진원 씨는 매우 부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기를 즐긴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며 줄곧 그렇게 해 왔었다. 박진원 씨는 예전에 그의 한 동료가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 동료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료가 성희롱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완전히 날조된 증거를 사장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 동료가 해고당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박진원 씨는 지금까지 만나 온 여자 친구들 몰래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우곤 했다. 또한 그는 이전에 길 잃은 강아지를 더럽다고 발로 찬 적도 있다. 박진원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며 그가 매우 결점이 많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측정 도구

주의 점검

참가자는 '다음 중 그의 현재 상태와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항에 대해 다섯 개의 선택지('그는 살아있다', '그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수명을 다해 사망했다', '그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중 자신이 읽은 시나리오의 내용과 부합하는 답변을 선택하였다. 주의 점검 문항에 틀린 응답을 한 참가자는 탈락하였다.

사자에 대해 지각된 인상

사자에 대한 인상 요소는 지각된 호감도, 유능성, 도덕성, 따뜻함, 삶의 가치, 추정되는 그리움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인물에 대한 느낌을 각 단어에 기반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 "다소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다소 그렇다", 6 = "대체로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각 변인의 점수는 변인별 측정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어 산출되었다.

지각된 호감도. 지각된 호감도 문항은 연구자가 호감도와 관련된 형용사를 선별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다음 형용사가 귀하께서 박진원 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호의적인’, ‘긍정적인’, ‘호감이 가는’(Cronbach’s α = .99) 어구로 구성된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도덕성. Newman과 Cain(2014)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를 번역한 하창현(2019) 연구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유능성 문항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유능성의 개념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고 생각되는 ‘자신감이 있는’을 ‘능력 있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형용사가 박진원 씨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 것 같은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안내한 뒤, 지각된 유능성을 ‘유능한’, ‘지적인’, ‘능력 있는’(Cronbach’s α = .97), 지각된 도덕성을 ‘도덕적인’, ‘이타적인’, ‘윤리적인’(Cronbach’s α = .93)의 어구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따뜻함. Fiske 등(2002)이 사용한 문항을 번역한 김혜숙 등(2003)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따뜻한’, ‘착한’, ‘정이 많은’(Cronbach’s α = .99)으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삶의 가치. 연구자가 해당 변인에 대해 서로 상관이 높다고 판단한 표현인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세상에 중요한’(Cronbach’s α = .99)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각 표현이 제시된 인물의 삶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물었다.

추정되는 그리움. 질문은 ‘만약 박진원 씨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박진원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로 제시되었다. 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그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가 그리울 것이다’,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Cronbach’s α = .99)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각된 사망 원인의 공정성

지각된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총 다섯 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 적절해 보인다”,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의 삶은 왠지 어울린다”,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타당해 보인다”, “그에게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공평해 보인다”, “그에게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공정해 보인다”(Cronbach’s α = .97)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인상 문항과 동일하게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분석 시 각 문항의 값을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각 변인 간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변인의 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망 여부와 도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연구 가설 1)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죽음 긍정 편향을 관찰하기 위해 2(사망 여부: 생존 조건 vs. 사망 조건) X 2(도덕성: 도덕적 vs. 비도덕적)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망 조건은 자연사 조건과 사고사 조건을 합친 것으로, 생존 조건과 비교되었다. 분석한 결과 사망 여부는 지각된 따뜻함을, $F(1, 337) = 0.631$, $p = .427$, $\eta^2 < .001$, 제외한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2). 구체적으로,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호감이 있으며, $F(1, 337) = 4.702$, $p = .031$, $\eta^2 = .001$, 더 유능하고, $F(1, 337) = 4.316$, $p = .039$, $\eta^2 = .004$, 더 도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37) = 9.050$, $p = .003$, $\eta^2 = .003$. 또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1. 지각된 호감도	-	.843**	.955**	.980**	.943**	.949**	.136*
2. 지각된 유능성		-	.829**	.851**	.862**	.847**	.134*
3. 지각된 도덕성			-	.964**	.933**	.926**	.168*
4. 지각된 따뜻함				-	.948**	.953**	.160*
5. 지각된 삶의 가치					-	.934**	.158*
6. 추정되는 그리움						-	.155*
7. 지각된 공정성							-
평균	3.60	3.27	3.57	3.66	3.52	3.56	3.36
(표준편차)	(2.45)	(1.79)	(2.30)	(2.55)	(2.19)	(2.32)	(1.76)

*$p < .05$, **$p < .01$.

표 2.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인		사망 원인			평균
		생존 (n = 114)	자연사 (n = 113)	사고사 (n = 114)	
지각된 호감도	도덕	5.81(0.93)	6.01(0.77)	5.99(0.88)	5.93(0.86)
	비도덕	1.15(0.39)	1.30(0.71)	1.34(0.57)	1.26(0.57)
	평균(표준편차)	3.48(2.45)	3.67(2.48)	3.66(2.45)	
지각된 유능성	도덕	4.60(0.92)	4.67(0.92)	4.91(0.96)	4.73(0.94)
	비도덕	1.61(1.17)	1.76(1.03)	2.06(1.12)	1.81(1.12)
	평균(표준편차)	3.11(1.83)	3.23(1.76)	3.49(1.77)	
지각된 도덕성	도덕	5.58(0.88)	5.82(0.84)	5.79(0.86)	5.73(0.86)
	비도덕	1.20(0.49)	1.47(0.72)	1.53(0.68)	1.40(0.65)
	평균(표준편차)	3.39(2.31)	3.66(2.32)	3.66(2.27)	
지각된 따뜻함	도덕	6.09(0.85)	6.18(0.79)	6.08(0.80)	6.12(0.81)
	비도덕	1.15(0.38)	1.21(0.43)	1.24(0.47)	1.20(0.43)
	평균(표준편차)	3.62(2.57)	3.72(2.58)	3.66(2.51)	
지각된 삶의 가치	도덕	5.30(0.88)	5.60(0.82)	5.64(0.98)	5.51(0.90)
	비도덕	1.29(0.60)	1.40(0.64)	1.84(1.14)	1.51(0.86)
	평균(표준편차)	3.29(2.15)	3.52(2.23)	3.74(2.18)	
추정되는 그리움	도덕	5.45(0.89)	5.82(1.04)	5.80(0.99)	5.69(0.98)
	비도덕	1.23(0.52)	1.33(0.69)	1.66(0.99)	1.41(0.78)
	평균(표준편차)	3.34(2.24)	3.60(2.32)	3.37(2.30)	
지각된 공정성	도덕		5.34(1.25)	1.92(1.03)	3.63(2.06)
	비도덕		2.51(1.14)	3.64(1.30)	3.08(1.34)
	평균(표준편차)		3.94(1.85)	2.78(1.45)	

주. 괄호 밖에 있는 수치는 평균을 의미하며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그림 2. 사망 여부와 도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한 살아있는 인물에 비해 죽은 인물의 삶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며, $F(1, 337) = 10.711$, $p = .001$, $\eta^2 = .005$, 인물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인물을 더 그리워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F(1, 337) = 9.882$, $p = .002$, $\eta^2 = .005$. 즉,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각된 따뜻함을 제외하고 지지되었다. 도덕성의 주효과 또한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해 유의했는데, 비도덕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s(1, 337) > 620.050$, $ps < .001$. 그러나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사망 여부와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337) < 0.231$, $ps > .109$.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연구 가설 2)

인물의 사망 원인에 따라 사자의 인상이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사망 원인: 자연사 vs. 사고사) X 2(도덕성: 도덕적 vs. 비도덕적)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즉, 생존 조건을 제외하고 자연사와 사고사만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인물이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더 유능하고, $F(1, 223) = 4.082$, $p = .045$, $\eta^2 = .006$,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F(1, 223) = 3.98$, $p = .047$, $\eta^2 = .003$. 그러나 이외의 인상 변인인 지각된 호감도, $F(1, 223) = 0.015$, $p = .903$, $\eta^2 < 0.001$, 지각된 도덕성, $F(1, 223) = 0.025$, $p = .875$, $\eta^2 < .001$, 지각된 따뜻함, $F(1,$

그림 3.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23) = 0.184, p = .669, η^2 < .001, 추정되는 그리움, F(1, 223) = 1.490, p = .224, η^2 = .001, 변인에서는 사망 원인의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망 원인이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각된 유능성과 지각된 삶의 가치를 제외하고 지지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덕성의 주효과는 모든 인상 변인에서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도덕적인 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Fs(1, 223) > 462.375, ps < .001,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223) < 0.630, ps > .815.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가설 3)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사고사보다 자연사를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였으며, F(1, 223) = 53.7, p < .001, η^2 = .108, 비도덕적일 때보다 도덕적일 때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3) = 12.6, p < .001, η^2 = .025. 또한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F(1, 223) = 209.1, p < .001, η^2 = .420, 그림 4와 같이 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했을 때보다 자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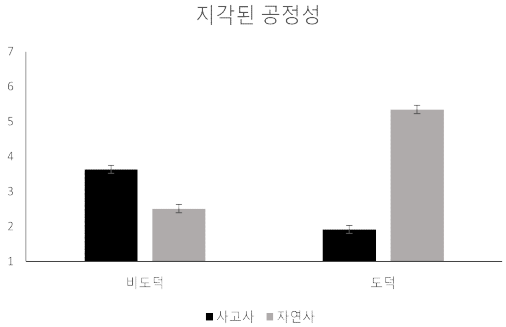

그림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했을 때 더 공정하며, $F(1, 223) = 238.491$, $p < .001$, $\eta^2 = .517$, 비도덕적인 인물이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3) = 25.320$, $p < .001$, $\eta^2 = .102$. 즉, 도덕적인 인물의 경우 자연사보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평가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더 나아가, 사망 원인이 공정성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한 가지 일환으로 각 사망 원인 조건 내에서 도덕적인 인물과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을 비교하였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 중 자연사가 긍정적인 죽음, 사고사가 부정적인 죽음으로 지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자연사 조건에서는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사고사 조건에서는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사고사 조건에서는 도덕적인 인물보다 비도덕적인 인물의 죽음을 더 공정하게 지각하였다, $F(1, 223) = 59.867$, $p < .001$, $\eta^2 = .212$. 반면, 자연사 조건에서는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도덕적인 인물의 죽음이 더 공정하게 지각되어, $F(1, 223) = 161.378$, $p < .001$, $\eta^2 = .420$,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공정성 지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의 매개효과

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이 도덕성에 의해 재조절되는 효과(연구 가설 4, Model 58)

사망 원인의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효과가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고,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사고사 0, 자연사 1로 코딩하고, 도덕성은 비도덕 0, 도덕 1로 코딩한 후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v4.1의 Model 58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 원인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B = -1.121$, $SE = 0.223$, $t = -5.032$, $p < .001$, 95% CI [-1.560, -0.682],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B = -6.261$, $SE = 0.496$, $t = -12.616$, $p < .001$, 95% CI [-7.239, -5.28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4.545$, $SE = 0.314$, $t = 14.462$과 $p < .001$, 95% CI [3.926, 5.165]. 인물이 도덕적인 경우에는 사고사에 비해 자연사를 공정하다고 지각하였으나, $B = 3.425$, $SE = 0.222$, $t = 15.443$, $p < .001$, 95% CI [2.988, 3.861],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자연사보다 사고사를 더 공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121$, $SE = 0.223$, $t = -5.032$, $p < .001$, 95% CI [-1.560, -0.682]. 이는 앞서 살펴본 이원분산분석의 결과(가설 3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자 인상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표 3과 같이 지각된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표 4와 같이 전체 모형으로 본 조절된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3. 사자 인상에 미치는 지각된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Model 58)

종속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지각된 호감도	-0.116	0.078	-1.497	.136	-0.269	0.037
지각된 유능성	-0.043	0.107	-0.406	.685	-0.167	0.254
지각된 도덕성	-0.110	0.081	-1.340	.182	-0.271	0.052
지각된 따뜻함	-0.043	0.069	-0.626	.532	-0.178	0.092
지각된 삶의 가치	-0.066	0.097	-0.681	.497	-0.256	0.125
추정되는 그리움	-0.113	0.099	-1.142	.255	-0.309	0.082

표 4. PROCESS Macro Model 58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인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0.172	0.138	-0.434	0.104
지각된 유능성	-0.189	0.185	-0.184	0.546
지각된 도덕성	-0.072	0.160	-0.241	0.392
지각된 따뜻함	-0.014	0.122	-0.227	0.253
지각된 삶의 가치	-0.174	0.181	-0.174	0.541
추정되는 그리움	-0.075	0.174	-0.264	0.419

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탐색적 분석, Model 7)

Model 7은 Model 58과 유사하지만, 지각된 공정성으로부터 사자 인상으로 가는 경로에서 도덕성의 조절 효과만을 제외한 모형이다(그림 5). 즉, Model 58 모형은 지각된 공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반면, Model 7은 지각된 공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도덕성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Model 58에서는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b경로에서 도덕성을 제외한 Model 7 모형으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7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B = 4.545$, $SE = 0.314$, $t = 14.462$, $p < .001$, 95% CI [3.926, 5.165]. 그리고 표 5와 같이 지각된 공정성이 높을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모형인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요약하자면,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며, 도덕성과 상관없이 지각된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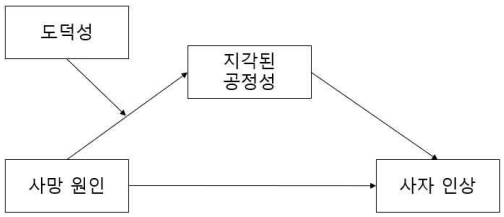

그림 5. PROCESS Macro Model 7 모형

표 5. 공정성이 변인에 미치는 효과(Model 7)

종속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지각된 호감도	0.213	0.979	2.176	.031	0.020	0.406
지각된 유능성	0.178	0.070	2.550	.011	0.041	0.316
지각된 도덕성	0.246	0.091	2.706	.007	0.067	0.424
지각된 따뜻함	0.254	0.101	2.513	.013	0.055	0.452
지각된 삶의 가치	0.246	0.087	2.822	.005	0.074	0.418
추정되는 그리움	0.247	0.093	2.647	.009	0.063	0.431

표 6. PROCESS Macro Model 7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인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0.968	0.452	0.057	1.801
지각된 유능성	0.810	0.337	0.114	1.443
지각된 도덕성	1.116	0.410	0.290	1.908
지각된 따뜻함	1.152	0.471	0.190	2.043
지각된 삶의 가치	1.118	0.411	0.304	1.903
추정되는 그리움	1.123	0.442	0.201	1.937

표 7.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 및 도덕성에 따른 사망 원인의 간접 효과(Model 7)

종속변인	Effect	Boot SE	*t*	*p*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직접효과	-0.239	0.343	-0.696	0.487	-0.916	-0.438
간접효과						
비도덕	-0.239	0.116			-0.472	-0.011
도덕	-0.729	0.350			-0.044	-1.418
지각된 유능성						
직접효과	-0.466	0.245	-1.899	.059	-0.949	-0.018
간접효과						
비도덕	-0.200	0.088			-0.386	-0.033
도덕	-0.610	0.256			-0.106	-1.108

표 7.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 및 도덕성에 따른 사망 원인의 간접 효과(Model 7) (계속)

종속변인	Effect	Boot SE	*t*	*p*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도덕성						
직접효과	-0.283	0.319	-0.888	.375	-0.911	-0.345
간접효과						
비도덕	-0.275	0.110			-0.494	-0.066
도덕	-0.841	0.319			-0.213	-1.474
지각된 따뜻함						
직접효과	-0.236	0.354	-0.667	.505	-0.934	-0.462
간접효과						
비도덕	-0.284	0.124			-0.530	-0.037
도덕	-0.868	0.361			-0.117	-1.561
지각된 삶의 가치						
직접효과	-0.510	0.306	-1.666	0.097	-1.113	-0.093
간접효과						
비도덕	-0.276	0.113			-0.509	-0.069
도덕	-0.842	0.322			-0.207	-1.463
추정되는 그리움						
직접효과	-0.420	0.328	-1.281	0.201	-1.065	-0.226
간접효과						
비도덕	-0.277	0.120			-0.519	-0.050
도덕	-0.846	0.343			-0.163	-1.506

이 높을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Model 58의 유의하지 않은 조절된 매개 효과는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과 사자 인상 간의 경로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모든 변인에 대하여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 효과는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인 경우 모두 유의하였다.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부적인 간접 효과가, 도덕적인 경우에는 정적인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인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사자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성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며,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어 인물의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인상 변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모든 인상 변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인상 변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지 않고 개별 변인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단일 요인으로 취급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변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또는 요인 분석 결과 자료에만 근거하기보다 연구자가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Das, 2015). 먼저 따뜻함과 유능성은 사회 인지적 차원에서 독립된 인상 변인으로 취급되며(Fiske et al., 2002), 타 연구에서도 도덕성, 유능성, 따뜻함, 인상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호감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왔다(Homer, & Batra, 1994). 마찬가지로 그리움의 경우 인물의 지인 관점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추측하고 있으며, 삶의 가치 또한 문항 내용 측면에서 인물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및 가치 등 타 변인과 구별되는 인상 차원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에만 기반해 각 인상 변인을 하나의 변인으로 취급하기보다 각 변인을 독립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연구의 본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죽음 긍정 편향에 대한 가설 1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Allison 등(2009)과 달리 인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죽음 긍정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lison 등(2009) 연구의 경우, 도덕적인 리더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비도덕적인 리더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일 때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인물이 죽었을 때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Hayes 등(2008)의 연구와 더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죽음 부정 편향이 관찰된 이유로는 제시된 인물이 리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 리더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개념을 부각시키며(De Cremer & Van Dijk,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을 더 한다는 연구(박혜경, 2015)에 비추어 볼 때 Allison 등(2009) 연구의 비도덕적인 리더에 대한 죽음 부정 편향은 대상의 지위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적인 해석으로는 인물의 삶과 사망 여부에 대한 진술문 제시 순서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사망 여부를 인물에 대한 소개 후에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망 정보를 먼저 제시한 후 인물의 도덕성에 대해 묘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물의 도덕성이 먼저 제시되면 참가자는 이미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한 후에 사망 여부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Allison 등(2009)의 연구와 같이 이미 형성된 인상이 죽음을 통해 극화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죽음에 대한 찬사 현상이 형성된 상태에서 긍정 편향을 토대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진술을 해석하게 되므로 도덕적인 인물을 더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인물을 덜 비도덕적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제시 순서의 차이는 지인의 사망 정보를 접하는 상황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의 사망 소식을 먼저 접한 후 인물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죽음 현저성이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려는 동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망한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편향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Allison et al., 2009)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죽음 현저성에 의한 불안이 형성될 때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McGregor, Lieberman, Greenberg, Solomon, Arndt, Simon, & Pyszczynski, 1998)는 참가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점화한 뒤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 살아있는 타인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죽음 긍정 또는 부정 편향을 관찰한 연구들의 경우(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 Hayes, 2016; Van Dick et al., 2019)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인물이 죽음 불안을 일으키는 주체인 동시에 해당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참가자는 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Hayes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죽음 긍정 편향의 기제일 것이라고 추측되어 온 TMT에 기반한 해석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죽음 불안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엄격하게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인물이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은 사망 원인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능성과 삶의 가치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는데, 두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사는 노인일 때만 가능한 죽음인 것에 비해 사고사는 천수를 다 하지 못하는 죽음이므로, 참가자들이 사고사한 인물의 연령을 더 낮게 지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유능성과 삶의 가치는 연령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의 유능성은 더 높게 지각되며(Krings, Sczesny, & Kluge, 2011),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가치 평가 또한 높게 지각될 수 있다. 그러나 Krings 등(2011)에서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해 따뜻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따뜻함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따뜻함에 대한 사망 원인의 효과 자체가 잘 관찰되지 않을 만큼 다른 변인에 비해 지각된 따뜻함에 대한 도덕성의 효과(η^2 = 0.935)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설 3은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성이 유의하게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그러나 인물이 비도덕적일 때보다 도덕적일 때 더 공정성이 높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타인의 사고사를 공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도덕적인 인물의 자연사를 사고사보다 공정하다고 파악하기는 쉽지만, 아무리 비도덕적인 인물이더라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참가자 입장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부터 어긋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수를 다 한 자연사가 사망 원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죽음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인 인물의 자연사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고사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심리적 거부감(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물에게서 상대적으로 공정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결과를 "비도덕적인 사람이 사망한 것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사망한 것이 공정하게 지각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참가자가 도덕적인 사람의 자연사(vs. 비도덕적인 사람의 사고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쉬웠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Model 58 모형의 경우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Model 7 모형에서는 유의하여, 공정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따른 두 결과의 차이는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b경로에 대한 도덕성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인상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의 설명력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odel 58은 인상에 대한 효과가 큰 도덕성 변인이 b경로에 투입되면서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이 감소된 것이다. 반면 Model 7에서는 도덕적인 인물의 사고사가 불공정하고 불공정성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Model 7의 결과는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이원분산분석 결과와 상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유능하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지만, Model 7의 경우 도덕적일 때 자연사가 더 공정하며, 공정할수록 인상의 모든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사할 때보다 사고사할 때 유능성과 삶의 가치가 높게 나타난 이원분산분석 결과와 달리 Model 7 결과에서는 도덕적인 인물이 오히려 사고사할 때보다 자연사할 때 유능성과 삶의 가치가 더 높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각된 공정성의 투입 여부에 따라 도덕적인 인물의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Model 7 모형의 유의한 결과는 지각된 공정성(매개변인)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a경로)와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b경로) 두 경로가 각각 유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달리 말하면, Model 7 모형의 결과를 사고사한 도덕적인 인물보다 자연사한 도덕적인 인물의 유능성과 삶의 가치가 더 높게 지각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a경로와 b경로에서 나타난 각각의 효과가 유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7에서 지각된 공정성이 모형에 투입되면서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사라졌으므로 여전히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이원분산분석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Model 7의 결과는 매개변인인 공정성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사망 원인의 간접효과이므로, 공정성을 매개하지 않은 이원분산분석에서 나타난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와 비교가 어렵다. 이는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b경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Model 7 해석의 한계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도덕성의 조작이 너무 강해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도덕성의 효과가 사망 여부 또는 사망 원인의 효과보다 매우 컸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망 정보의 작은 효과 크기는 실제로 사망 정보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도덕성이라는 변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덕성의 조작 강도를 약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사망 정보와 인상 형성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 설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 간격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기초한 선행 연구 Allison 등(2009)의 연구 3에서 참가자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읽었으며 해당 시나리오에는 인물의 도덕성과 사망 여부를 묘사하는 문장이 시간 간격 없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도덕성을 묘사하는 시나리오와 사망 원인에 대해 묘사하는 문장이 각각 다른 페이지에 제시되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리서치 회사에서 설정한 각 페이지 당 최소 체류 시간을 설정하였으므로, 선행 연구에 비해 인상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게 할당되었다. 선행 연구의 짧은 인상 형성 시간을 보완해 현실성을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조건을 추가하지 않아 인상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평가 현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한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

을 추가하여 사망 정보의 효과를 상대적 비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맥락 가운데서의 사망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중심으로 인물의 지위에 따른 죽음 편향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고 사망과 도덕성 정보의 순서를 변인으로 취급하여 보다 깊이 있게 죽음 편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물의 도덕성을 묘사하는 시나리오가 사망했다는 정보보다 선행하는 조건에서는 이미 인물의 도덕성 정보에 의해 형성된 인상이 사망 정보에 의해 극화되어 더 도덕적이거나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도덕성의 정보가 사망 정보에 후행하는 경우 참가자는 사망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어 죽음 긍정 편향을 경험하고, 이후 비도덕적인 인물 시나리오에 노출되어도 이미 형성된 긍정 편향이 추후 형성될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확인된 죽음 극화 편향과 본 연구의 죽음 긍정 편향 결과 차이가 순서 효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관찰하게 된다면 상충되어 보이는 두 현상이 이론적으로 양립 가능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망 원인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으로 인한 인상 평가가 폄하 방식으로 여전히 일어나는지 반복 검증하고 더 나아가 그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이해하고 인상 형성의 대상을 사자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사회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 현상보다는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태도와 인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사망 맥락으로 확장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기존 사회심리학적 현상이 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인상이 사망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정치 및 사회 인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재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비도덕적인 공인의 죽음 이후 비판이 감소되는 분위기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도덕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중의 윤리적 이해 및 의식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왜곡된 죽음 긍정 편향은 올바른 사회 기준 습득 과정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비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과 문화적 맥락이 다른 한국에서도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죽음 긍정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애도, 장례 의식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Gire, 2014) 죽음 긍정 편향 현상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긍정 편향은 시대 및 문화적 배경과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임을 확인하고 사망자에 대한 다양한 장례 및 추모 의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현진명은 충북대학교 사회심리학과를 석사 졸업하였다. 인물과 집단에 대한 인상 형성, 공중 대상 메시지 전달 및 설득 과정, 여론 형성 과정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글로벌 PR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박상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음 지각, 집단 간 관계, 도덕적 판단, 빈부 문제, 사회심리학의 정책에의 적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박혜경 (2015).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 6(1), 53-69.

연합뉴스 (2009. 10. 21). 사형집행자가 전하는 '5분간의 동행'.

연합뉴스 (2010. 10. 27). <문화소식> 천주교, 사형수 위령미사.

이명숙, 김윤정 (2013).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83-299.

통계청 (2021).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8&tag=&act=view&list_no=420715&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에서 9.1 자료 얻음.

하창현 (2019). 피부색이 한국인 대상에 대한 인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https://doi.org/10.16881/jss.2023.01.34.1.225

Al-Zaman, M. S., & Or Rashid, M. H. (2022). Social media users' reactions to suicide. *Journal of loss and trauma, 27*(8), 746-760.

Allison, S. T., Eylon, D., Beggan, J. K., & Bachelder, J. (2009). The demise of leadership: Positivity and negativity biases in evaluations of dead leaders. *The Leadership Quarterly, 20*(2), 115-129. https://doi.org/10.1016/j.leaqua.2009.01.003

Allison, S. T., & Eylon, D. (2005). The demise of leadership: Death positivity biases in posthumous impressions of leaders. In D. Messick & R. Kramer (Eds.), *The Psychology of Leadership: Some New Approaches* (pp. 295-31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https://doi.org/10.1037/h0055756

Batson, C. D., Chang, J.,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2), 1656-1666. https://doi.org/10.1177/014616702237647

Bramel, D., Taub, B., & Blum, B. (1968). An observer's reaction to the suffering of his ene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p1), 384-392. https://doi.org/10.1037/h0025588

Bryan, J. H., & Davenport, M. (1968). Donations to the needy: Correlates of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destitute. *ETS Research Bulletin Series, 1968*(1), i-10. https://doi.org/10.1002/j.2333-8504.1968.tb00152.x

Calhoun, L. G., Selby, J. W., & Faulstich, M. E. (1980). Reactions to the parents of the child suicide: A study of social impres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535-536. https://doi.org/10.1037/0022-006X.48.4.535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284-299. http://dx.doi.org/10.1037/0022-3514.83.2.284

Stellar, J. E., Gordon, A., Anderson, C. L., Piff, P. K., McNeil, G. D., & Keltner, D. (2018). Awe and hum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2), 258-269. https://doi.org/10.1037/pspi0000109

Das, J. (2015). Three faces of cognitive processes: Theor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T. C. Papadopoulos, R. K. Parrila, & J. R. Kirby

(Eds.), *Cognition,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pp. 19-47). Elsevier. https://doi.org/10.1016/B978-0-12-410388-7.00003-8

De Cremer, D., & Van Dijk, E. (2008). Leader-follower effects in resource dilemmas: The roles of leadership selec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1*(3), 355-369. https://doi.org/10.1177/1368430208090647

de Vel-Palumbo, M., & Berryessa, C. M. (2023). When bad things happen to rotten people: Indifference to incidental har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Crime & Law, 29*(8), 795-808. https://doi.org/10.1080/1068316X.2022.2036739

Eisenberg, N., Eggum, N. D., & Di Giunta, L. (2010). Empathy related responding: Associ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aggression, and intergroup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1), 143-180. https://doi.org/10.1111/j.1751-2409.2010.01020.x

Ekelund, R. B., Ressler, R., & Watson, J. K. (2000). The death-effect in art prices: A demand-side explor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4*(4), 283-300. https://doi.org/10.1023/A:1007618221648

Eyal, T., Hoover, G. M., Fujita, K., & Nussbaum, S. (2011). The effect of distance-dependent construals on schema-drive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1), 278-281. https://doi.org/10.1016/j.jesp.2010.10.007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http://dx.doi.org/10.1037/0022-3514.82.6.878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072-7

Futterman, A., Gallagher, D., Thompson, L. W., Lovett, S., & Gilewski, M. (1990). Retrospective assessment of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on during the first 2 years of spousal bereavement. *Psychology and Aging, 5*(2), 277-283. https://doi.org/10.1037/0882-7974.5.2.277

Galak, J., & Chow, R. M. (2019). Compensate a little, but punish a lot: Asymmetric routes to restoring justice. *PLoS ONE, 14*(1), e021067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0676

Gire, J. (2014). How death imitates life: Cultural influences on conceptions of death and dying.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6*(2), 3. https://doi.org/10.9707/2307-0919.1120

Green, J. P., & Mohler, E. W. (2014). The death effect in literary evaluation: Reverence for the dead?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8*(3), 229-239. https://doi.org/10.2190/OM.68.3.c

Greenberg, J., Solomon, S., & Pyszczynski, T.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Empirical assessments and conceptual refinement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61-139). New York: Academic Press.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Baumeister R. F. (Eds.),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 189-212).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13-9564-5_10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308-318. https://doi.org/10.1037/0022-3514.58.2.308

Hartley, A. G., Furr, R. M., Helzer, E. G., Jayawickreme, E., Velasquez, K. R., & Fleeson, W. (2016). Morality's centrality to liking, respecting, and understanding other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7), 648-657. https://doi.org/10.1177/1948550616655359

Hauer, E. (1994). Can one estimate the value of life or is it better to be dead than stuck in traffic?.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28*(2), 109-118. https://doi.org/10.1016/0965-8564(94)90032-9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ayes, J. (2016). Praising the dead: On the motivational tendency and psychological function of eulogizing the deceased. *Motivation and Emotion, 40*(3), 375-388. https://doi.org/10.1007/s11031- 016-9545-y

Hayes, J., Schimel, J., & Williams, T. J. (2008). Fighting death with death: The buffering effects of learning that worldview violators have died. *Psychological Science, 19*(5), 501-507.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115.x

Homer, P. M., & Batra, R. (1994). Attitudinal effects of character-based versus competence-based negative political communic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3*(2), 163-185. https://doi.org/10.1016/S1057-7408(08)80003-4

Krings, F., Sczesny, S., & Kluge, A. (2011). Stereotypical inferences as mediators of age discrimination: The role of competence and warmth.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2*(2), 187-201. https://doi.org/10.1111/j.1467-8551.2010.00721.x

Landy, J. F., Piazza, J., & Goodwin, G. P. (2016). When it's bad to be friendly and smart: The desirability of sociability and competence depends on mor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9), 1272-1290. https://doi.org/10.1177/0146167216655984

Lerner, M. J. (1965).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55-360. https://doi.org/10.1037/h0021806

McGregor, H. A., Lieberman, J. D.,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Simon, L., & Pyszczynski, T. (1998). Terror management and aggression: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motivates aggression against worldview-threaten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590-605. https://doi.org/10.1037/0022-3514.74.3.590

Miller, D. (1977). Altruism and threat to a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13-124. https://doi.org/10.1016/S0022-1031(77)80004-8

Mrozek, J. R., & Taylor, L. O. (2002). What determines the value of life? A meta analysi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1*(2), 253-270. https://doi.org/10.1002/pam.10026

Newman, G. E., & Cain, D. M. (2014). Tainted altruism: When doing some good is evaluated as worse than doing no good at all. *Psychological Science, 25*(3), 648-655. https://doi.org/10.1177/0956797613504785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1999). A dual-process model of defense against conscious and unconscious death-related thoughts: an extension of terror management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6*(4), 835-845. https://doi.org/10.1037/0033-295X.106.4.835

Richard, F. D., Bond Jr, C. F., & Stokes-Zoota, J. J. (2003). One hundred years of social psychology quantitatively describe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4), 331-363. https://doi.org/10.1037/1089-2680.7.4.331

Robinaugh, D. J., Mauro, C., Bui, E., Stone, L., Shah, R., Wang, Y., & Simon, N. M. (2016). Yearning and its measurement in complicated grief. *Journal of Loss and Trauma, 21*(5), 410-420. https://doi.org/10.1080/15325024.2015.1110447

Rosenblatt, A.,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Lyon, D.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81-690. https://doi.org/10.1037/0022-3514.57.4.681

Shaw, J. I., & Steers, W. N. (2001). Gathering information to form an impression: Attribute categories and information valence.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6*(1), 1-21.

Stroebe, W., Abakoumkin, G., & Stroebe, M. (2010). Beyond depression: Yearning for the loss of a loved on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2), 85-101. https://doi.org/10.2190/OM.61.2.a

Van Dick, R., Fink, L., Steffens, N. K., Peters, K., & Haslam, S. A. (2019). Attributions of leaders' charisma increase after their death: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leadership and identity fusion. *Leadership, 15*(5), 576-589. https://doi.org/10.1177/1742715018807042

1 차원고접수 : 2024. 01. 14.
수정원고접수 : 2024. 07. 04.
최종게재결정 : 2024. 08. 2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4, Vol. 38, No. 4, 253-277
https://doi.org/10.21193/kjspp.2024.38.4.001

Regular Article

The Effect of Cause of Death on Impression of The Dead Depending on Their Morality

Jinmyeong Hyeon **Sang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death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ause of death on the posthumous impressions of individuals. Specifically, we explored how impressions are formed regarding perceived likability,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morality, perceived warmth, the perceived value of the individual's life, and the sense of longing for the target when a moral or immoral figure experiences accidental or natural death, or stays alive. We hypothesized that the target would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when they are deceased compared to when they are alive due to death positivity bias and more positively when experiencing accidental death (vs. natural death). The results showed a death positivity bias in all impression variables except warmth. Additionally, the target was perceived as more competent and having higher life value when passed away due to accidental death compared to natural death. Furthermore, we examined how the fairness of the cause of death is perceived based on the target's morality, and how the perceived fairness influences impressions. It was found that natural death was perceived as the fairer cause of death when the target was moral, while accidental death was perceived as fairer when the target was immoral. Moreover, the mor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cause of death to be fair, the more positively they evaluated the target. Lastly,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suggesting cultural worldview endorsement as the mechanism of death positivity bias, we raised questions and discussed the ambiguity of cultural worldview interpretations in death positivity bias research. This study contributes by confirming that impression formation can extend to posthumous contexts, exploring and discovering psychological phenomena stemming from the cause of death.

Key words : cause of death, death positivity bias, impression, terror management theory, justice